

고문자 書寫元素의 系統적 발전 방향에 대한 小考*

노민정**

【목 차】

- | | |
|--------------------|------------------|
| 1. 서론 | 3. 고문자 서사원소의 귀납성 |
| 2. 고문자 서사원소의 성질 변화 | 4. 결론 |

【초록】

한어(漢語)를 기록하는 언어부호로서 한자는 점진적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성숙한 문자체계를 갖추었다. 서사(書寫)의 측면에서 한자는 고문자 단계에서 서사원소(書寫元素)의 계통(系統)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 예서에서 한자의 기본 ‘필획’이 완성되었다. 고문자 서사원소의 체계적인 발전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고문자 서사원소의 본질적인 변화이다. 이는 서사원소가 사물을 묘사하는 선에서 글자를 구성하는 선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다른 하나는 고문자의 서사원소가 유형화되는 과정이다. 서사원소의 유형화를 통하여 소전에서는 자형에 사용된 모든 ‘선’이 9가지 기본 대유형으로 귀납되었다. 이러한 고문자 서사원소의 계통적 발전 과정은 한자발전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이를 통하여 한자는 예변(隸變)의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키워드】 한자, 고문자, 서사원소, 서사체계, 한자 필획

* 본고는 본 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 『漢字書寫元素의演進——以『說文』小篆為主』의 ‘小篆書寫元素系統的特性’ 부분에서 논하지 못하였던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2021년 중국인문학회·대한중국학회 추계연합국제학술대회의 발표문 「고문자 書寫元素의 계통적 발전 특징」을 수정한 것이다.

** 전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mjnosky@naver.com)

1. 서론

한자의 형체는 구형원소(構形元素)와 서사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한자구형학의 개념으로 유기적인 문자체계 속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한자의 형체를 구성한다.

“한자의 구형원소는 하나의 형체가 글자를 구성할 때 그 글자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요소로써, 의미를 구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한자의 형체구성 단위이다. 이를 구건(構件) 또는 부건(部件)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日·木’은 ‘杲’의 구건이고, ‘木’은 ‘森’의 구건이다. 한자구형학에서는 한자를 분해할 때,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가장 최소단위까지 분해하는데, 이 최소단위를 한자의 기초구형 요소인 ‘형소(形素)’ 또는 ‘기초구건(基礎構件)’이라고 한다.”¹⁾

한자를 분해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하나의 형체를 이루고 있는 구건의 결합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한자의 구건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그 형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되었는지 고려해야 한다. 한자의 결합 유형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구건들이 일차적으로 한 번에 분해되는 평면구조(平面構造)이고, 다른 하나는 구건들이 한층 한층 단계에 따라서 분해되는 단계구조(層次構造)이다. 위에서 예로든 ‘杲’는 평면구조로 구건들이 일차적으로 한 번에 분해되므로 ‘杲’의 구건인 ‘日·木’은 이 글자의 기초구건인 동시에 직접적으로 전체글자를 이루며 그 글자를 만든 의도(造字意圖)가 드러나는 직접구건(直接構件)²⁾이 된다.

그러나 단계구조는 가장 작은 기초구건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한층 한층 형체결합이 이루어는 생성식 구조이다. 이에 자형의 분해가 일차적으로 끝나지 않고 가장 작으면서 구의(構意) 기능을 갖추고 있는 최소단위까지 단계적인 분해가 진행된다. 예를 들어, ‘皀’는 처음 단계에서 ‘糸’와 ‘敷’로 분해한다. 그러면 ‘敷’는 다시 ‘白’과 ‘放’으로 분해하고, ‘放’은 다시 ‘方’과 ‘攴’으로 분해된다. 그러므로 ‘皀’의 직접구건은 ‘糸·敷’이고, 기초구건은 ‘糸·白·方·攴’이다.

한자의 자형은 필획을 임의대로 연결한 결합이 아니라 기초구건이 일정한 규칙에 의해 조합된 결과인 것이다. 각 시대별 한자의 구형체계연구 결과를 보면, 기초구건의 개수는 400여 개 정도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몇 백 개의 기초구건으

1) 王寧, 홍영희 譯, 『한자구형학강좌』, 제이앤씨, 2011, p.79. 참조.

2) 직접구건은 한자의 형체를 한번 분해하여 얻은 결과를 말하며, 글자가 형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구형근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한자구형학의 개념으로 볼 때, 형성자의 의부(義符)와 성부(聲符)는 한자의 직접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로 수천수만 개의 자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에 한자구형학에서는 서사원소를 분석할 때, 글자의 전체 형체를 기준으로 분해하지 않고, 기초구건을 기준으로 분해한다. 그러므로, 한자의 서사원소는 구건을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분해하여 얻은 서사의 최소단위를 말한다.

따라서 고문자의 서사원소를 묘사하고 분석함에 있어, 반드시 구형원소와의 유기적인 연결을 고려해야 한다.

초기 고문자 단계의 한자는 자형을 구성할 때 ‘상형(象形)’을 가장 중요한 구형 수단으로 사용하여 글자의 상형성(象形性)이 강하다. 그러나 문자의 구형체계가 발전함에 따라, 한자는 한어(漢語)를 기록하는 부호로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점진적으로 정연하고 엄밀한 내부 구성체계를 갖추어 나갔다. 이와 같이, 고문자 단계의 한자의 체계적인 변화를 ‘계통화(系統化)’라고 한다. “고문자 단계에서 한자 구형의 체계를 세우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실현된다. 바로, 서사단위의 계통화·구형단위의 계통화·구형이거(構形理據)³⁾의 계통화이다.”⁴⁾

고문자 단계의 한자는 은상갑골문(殷商甲骨文)으로부터 서주금문(西周金文)을 거쳐 진대소전(秦代小篆)에 이르러, 가장 정연하고 성숙한 계통적 발전을 이루었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세 가지 측면 중 고문자 서사원소의 계통적 발전 특징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는 한자발전사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만약 한자의 서사원소가 고문자 단계에서 계통적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다면 필획을 철저히 간략화시키는 예변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고문자 서사원소의 계통적 발전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고문자 서사원소의 성질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고문자 서사원소의 귀납성이다. 이 두 가지 고문자 서사원소의 계통적 발전 특징을 통하여 고문자의 서사원소가 어떻게 그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고문자 서사원소의 성질 변화

1) 한자의 서사원소

3) 구형이거는 용어의 글자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면 글자의 형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치적인 근거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글자의 자형이 글자를 만든 의도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어떤 수단으로 다른 글자와 구별성을 가지는지를 말한다.

4) “古文字階段對漢字構形的系統建構，是從三個層面實現的，即書寫單位的系統化，構形單位的系統化，構形理據的系統化。”王立軍，「從“篆隸之變”看漢字構形系統發展的方向性調整和泛時性特征」，《語文研究》，第3期，山西省社會科學院，2020.10，p.16.

한자는 각 시대별 한자마다 서로 다른 서사원소를 가진다. 이는 갑골문부터 해서에 이르기까지 한자의 서사 재료와 서사 도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역대 한자마다 글을 쓰는 방식도 각각 다르며, 그 결과 구현된 자형의 서사원소도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된다. 갑골문은 거북이 배 껍질에 새긴 글자로서 갑골문의 서사원소는 ‘각흔(刻痕)’이며, 청동기물에 주조된 금문의 서사원소는 ‘주적(鑄跡)’이다. 그리고 붓으로 죽간 등에 쓴 소전의 서사원소는 ‘선(線)’이며, 금문자(今文字)에 속하는 예서와 해서의 서사원소는 ‘필획(筆劃)’⁵⁾이다.

왕녕(王寧)은 각 시대별 한자의 서로 다른 서사 방식을 ‘넓은 의미로서의 서사(廣義的書寫)’로 포괄하고, ‘넓은 의미로서의 서사’에 의해 구현된 결과인 한자의 형체를 구성하는 서사원소를 ‘넓은 의미로서의 필획(廣義的筆劃)’이라고 하였다.⁶⁾ 이는 각 시대별 한자의 서사원소의 형태로 볼 때, 서로 다른 서사원소라 할지라도 모두가 한자의 형체를 이루고 있는 선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서의 필획’이라고 포괄한 것이다. 그러나 한자의 서사원소는 문자의 구형체계가 엄밀하게 발전함에 따라, 각 시대별 한자마다 그 성질과 특징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한자의 서사원소는 그 성질에 따라 크게 고문자의 ‘선’과 금문자의 ‘필획’으로 구분된다. ‘선’과 ‘필획’은 한자를 고문자와 금문자로 구분하는 기준이 되며,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명한 경계를 가진다.

2) 초기 고문자 서사원소의 특징과 발전 방향

고문자의 ‘선’⁷⁾과 ‘필획’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상형성의 유무이다. 은상갑골문은 초기 고문자로서 그 자형의 대부분이 상형원리에 의해 구성되었다. ‘상형원리’는 객관적인 사물의 외부 형상을 본뜨거나 그 특징을 직관적으로 묘사하여 자형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에 갑골문의 자형은 상형성이 매우 강하고, 자형 간의 개별화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갑골문의 자형은 서로 간의 유기적인 연결성이 약하다.

갑골문의 자형을 구성하는 ‘선’도 자형의 상형성에 영향을 받아서, 물상(物像)의 윤곽이나 그 특징에 상응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에 갑골문의 ‘선’은 필형(筆形)의 다양성을 가진다. 왕봉양(王鳳陽)은 『漢字學』에서 초기 고문자의 ‘선’을 ‘사물을 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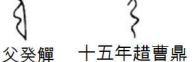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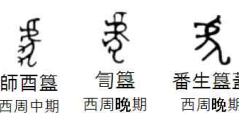












5) 여기서의 ‘필획’은 ‘좁은 의미로서의 필획’으로 ‘넓은 의미로서의 필획(廣義的筆劃)’과 구별된다. 이는 금문자에 속하는 한자의 서사원소를 의미하며, 현재 한자의 형체를 구성하는 선과 점을 정의하는 개념이다.

6) 王寧, 『漢字構形學導論』, 商務印書館, 2015, p.78. 참조.

7) 이하 고문자에 속하는 갑골문·금문·소전의 서사원소를 ‘선’으로 지칭한다.

한 선(摹物的線條)⁸⁾이라고 칭하였는데, 이는 초기 고문자의 ‘선’에 대한 매우 적합한 표현이라 하겠다. 다음 <표1>의 갑골문의 자형을 보면 이러한 ‘선’의 특징이 분명하게 보인다.

<표1> 각 시대별 고문자 자형표

楷書	殷商甲骨文	西周金文	小篆
弓	 前5.7.2(甲) 商 甲2501 合26907 何組 乙137 合21339 自組	 弓父癸觶 西周早期 集成6332 十五年趙曹鼎 西周中期 集成2784 同卣 西周中期 集成5398	 說文·弓部
馬	 乙9092 合19813 自組 菁3.1 合10405 賓組 甲3473 合5711	 令鼎 西周早期 集成2803 師奎父鼎 西周中期 集成2813 史頌簋 西周晚期 集成4230	 說文·馬部
魚	 前4.56.1 合10492 佚812(甲) 商 京津1512 合10493	 魚從卣 西周早期 集成4853 伯魚卣 西周早期 集成5234 毛公鼎 西周晚期 集成2841	 說文·魚部
虎	 甲2422 合21472 乙2844 合11018 賓組 餘17.1 合10217 佚671 合21769	 師西簋 西周中期 集成4288 匄簋 西周晚期 集成4321 番生簋蓋 西周晚期 集成4326	 說文·虎部
鹿	 甲3821 合10287 甲1395 合28334 何組 鐵45.4 合10296	 命簋 西周早期 集成4112 貉子卣 西周早期 集成5409	 說文·鹿部
鳥	 乙7991 合11500 賓組 後2.18.7 合3028 賓組 林2.16.19 合8239 賓組	 鳥壬卣 西周早期 集成2176 子之弄鳥尊 春秋晚期 集成5761	 說文·鳥部
火	 甲1074 合9104 林2.21.3 合19624 京津4634 合28189 無名組		 說文·火部
冊	 乙207 合9357 粹519 合32285 歷組	 作冊卣 西周早期 集成5400 師奎父鼎 西周中期 集成2813 頌壺 西周晚期 集成9731	 說文·冊部

8) 王鳳陽, 『漢字學』, 中華書局, 2018, p.212.

鼎	 乙745 合6485 賓組  掇2.8 合15267  乙9085反 合20463反 自組	 作父己鼎 西周早期 集成2252  大鼎 西周中期 集成2807  南皇父盤 西周晚期 集成10164	 說文·鼎部
高	 後1.6.7 合2362  甲1912 合28144	 玃父丁簋 商代晚期 集成9807  史牆盤 西周中期 集成10175  駒父盥盤 西周晚期 集成4464	 說文·高部

위 표의 갑골문“𠩺(弓)”은 활등과 활시위가 있는 활의 모양을 본뜨고 있다. 갑골문“𠩺(馬)”는 말의 눈, 말의 갈기, 말의 꼬리의 모양을 그리고 있다. 갑골문“𩺰(魚)”는 한 눈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물고기의 모양을 그리고 있다. 갑골문“𧇧(虎)”는 호랑이의 날카로운 이빨과 몸의 줄무늬를 그려내고 있다. 갑골문“𧇧(鹿)”은 사슴 머리의 뿔과 네 개의 다리를 그리고 있다. 갑골문“𧇧(鳥)”는 새의 윤곽을 그리고 있다. 갑골문“𧇧(火)”는 불꽃의 형상을 그리고 있다. 갑골문“𧇧(册)”은 죽간의 모양을 그리고 있다. 갑골문“𧇧(鼎)”은 고대의 음식을 익히는데 쓰인 솥으로, 윗부분은 귀가 둘 달리고 아랫부분은 발이 둘 있는 모양을 그리고 있다. 갑골문“𧇧(高)”는 누대가 중첩된 모양을 그리고 있다.

이와 같이, 초기 고문자 단계에서 ‘글자를 쓴다’는 것은 거의 그림을 그리는 것에 가까웠다. 그러나 글자를 쓴다는 것과 그림을 그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활동 목적이 다르다. 글자를 쓰는 것은 의사소통을 위하여 언어를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글자를 쓸 때 사람들은 그림처럼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보다는 서사의 효율성과 용이성을 추구하게 된다. 이는 곧 사람들이 글자를 쓸 때 신체적으로 쓰기 쉽고 편하게 느끼는 습관을 따라 서사원소를 글자 간의 구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해서 가지런하고 간략한 형태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문자 ‘선’의 간략화는 한자의 발전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고문자의 상형성이 점점 약화되고, 그 자형이 ‘부호화(符號化)’ 되었다. 그러나 고문자의 ‘선’의 간략화와 자형의 ‘부호화’는 일방적인 관계를 통하여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문자체계 안에서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가 서로의 촉매제 역할을 함으로써 발생한 고문자의 발전 과정이다.

한자의 부호화는 자형을 구성하는 구건의 형체가 어휘가 반영하는 객관적 사물의 형상으로부터 벗어나, 어휘의 의미정보를 가지는 부호로서 새로운 글자의 형체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다시 말해, 한자의 부호화는 고문자의 자형이 상형성을

탈피하는 과정이며 언어를 기록하는 진정한 부호가 되는 과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자의 부호화가 성숙한 단계로 발전할수록 고문자 ‘선’도 계통화를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발전이 진행되었다. 고문자의 자형이 부호화 될수록 자연스럽게 언어부호로서 고정된 자형이 필요하게 되고, 자형이 정형화(定形化) 될수록 그 자형을 이루는 ‘선’의 형태도 더불어 정형화 되어, 서로 규칙성을 가지고 귀납되는 유형화(類型化)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것은 한자발전의 필연적인 발전 과정이다. 한자의 부호화로 인하여 고문자의 ‘사물을 묘사하는 선(摹物的線條)’이 이미 물상의 속박에서 점점 구애받지 않게 되면서, 사람들은 편하게 느끼는 바대로 글자를 쓸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손의 편한한 움직임에 따라 자형을 간략하게 고쳐나가는 과정이며, 또한 ‘사물을 묘사하는 선(摹物的線條)’의 본질이 변화하는 과정이다.”⁹⁾ 이를 문자학에서는 고문자 ‘선’의 ‘선화(線化)’라고 한다.

“선화(線化)는 상형성으로 인하여 ‘선’마다 그 굵기가 일정하지 않거나, 면을 채우는 방식(填面)으로 쓰여진 초기 고문자의 ‘선’이 간략화되고 균일한 굵기의 형태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¹⁰⁾ 예를 들어 갑골문 ‘왕(王)’자의 자형 중 ‘’ (合集1780)과 ‘’ (合集20462)의 경우 자형의 서사에 면을 채우는 방식이 사용된 부분이 소전의 ‘王(王)’에서는 자형에 사용된 ‘선’이 모두 일정한 굵기의 선의 형태로 변화되었다.

3) 소전 서사원소의 성질변화와 그에 따른 서사특징

고문자 ‘선’의 ‘선화’ 현상이 의미하는 것은 상형성이 짙은 고문자의 ‘선’이 ‘글자를 구성하는 선(組字用線條)’¹¹⁾으로 그 성질이 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화’가 완성된 시기인 소전의 ‘선’은 본질상 ‘글자를 구성하는 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소전 ‘선’의 이러한 본질적인 변화는 ‘선’의 서사표현에서도 잘 드러난다.

초기 고문자의 자형은 사물의 구별성을 가진 특징을 나타내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만약 그리는 사물의 특징이 뚜렷하면 약간의 부차적인 특징은 생략할 수 있고, 사용되는 선의 개수나 형태가 달라도 상관없었다. <표1>의 갑골문과 금문의 ‘늑(鹿)’자를 보면, 사슴의 특징인 뿔을 모두 구현하고 있으나, 그 외 나머지 부분의 자형은

9) “这是必然的, 既然字形中的線條已經不受客觀事物形象的約束, 人們就怎麼方便怎麼書寫了. 根據手的運動方便去改造字形的過程也就是摹物線條變質的過程.” 王鳳陽, 『漢字學』, 中華書局, 2018, p.214. 참조.

10) “所謂線條化指書寫元素的粗細變得一致, 圓形、方形的填面塊為線條所代替的演變現象.” 盧珉廷, 『漢字書寫元素的演進——以『說文』小篆為中心』, 北京師範大學 博士論文, 2019, p.129. 참조.

11) 王鳳陽, 『漢字學』, 中華書局, 2018, p.216.

사용된 선이 모두 다르고 심지어는 그 특징인 뿔의 모양마저도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초기 고문자 단계에서는 같은 글자에 많은 이체자가 용인되었다.

그러나 소전 단계에서는 자형이 이미 성숙한 정형화를 이루어, 자형에 사용된 ‘선’의 형태는 물론 그 ‘선’을 조합하는 방법에 관한 것까지 모두 고정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소전 ‘𤇀(火)’는 단독으로 상형자로 쓰이는 경우나 다른 글자의 구건으로 사용되는 자형 중의 ‘𤇀(炳)’과 ‘𤇀(赤)’을 보면 ‘𤇀(火)’의 자형이 모두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소전의 구건은 독체자(獨體字)로 쓰이던지 어떤 글자의 구건으로 쓰이던지 그 형체에 사용된 선의 종류와 조합 관계가 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전 ‘선’의 서사표현은 금문자의 ‘필획’의 표현방식과 동일하다. 이에 소전의 ‘선’이 이미 ‘필획’으로의 본질적인 발전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사원소의 본질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전의 ‘선’을 금문자의 ‘필획’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소전의 자형이 아직 고문자의 상형성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여, 그 ‘선’이 여전히 ‘필의(筆意)’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필의’는 글자의 형체를 통하여 드러나는 기록된 어휘의 본래 의미를 말한다. 이는 곧 소전의 ‘선’이 ‘상징성(象徵性)’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초기 고문자 단계에서 객관적 사물의 윤곽을 묘사하기 위해 굴곡이 있는 호선(弧線)과 곡선(曲線)이 주로 사용된 것은 초기 고문자 ‘선’의 서사표현의 특징 중 하나이다. 그런데 소전의 자형에 주로 사용된 ‘선’의 유형을 분석해보면, 여전히 호선과 곡선이 서사표현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민정(盧珉廷)은 『漢字書寫元素的演進——以『說文』小篆為中心』에서 『說文』 소전 자형 중 진전(秦篆)에 부합하는 9451자에서 사용된 소전의 9가지 기본 서사원소의 출현 횟수에 대하여 통계를 진행하였다.¹²⁾ 그 결과 호선의 출현횟수는 9,451자 중 7,952자에서 호선이 사용되었고, 그 비율은 전체 소전 자형의 84.14%이다. 곡선은 4,969자에서 사용되어, 그 비율은 대략 53%이다.¹³⁾ 이 수치는 곧 소전의 서사원소가 더 이상 글자의 상형성에 구애받지 않는 오직 ‘글자를 구성하는 선’으로 ‘선화’ 되었지만, 여전히 상형의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1>의 소전의 자형을 보면, 자형을 구성하는 선의 굵기는 균일하고, 또한 가지런히 정돈되었다. 선과 선의 간격 역시 일정하다. 소전은 갑골문과 금문처럼 그 자형이 묘사하고 있는 물체를 직관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선의 조합으로

12) “我們對『說文』小篆中與秦篆相合的9451個字形進行了線條的筆次統計。” 盧珉廷, 『漢字書寫元素的演進——以『說文』小篆為中心』, 北京師範大學 博士論文, 2019, p.86. 참조.

13) 盧珉廷, 『漢字書寫元素的演進——以『說文』小篆為中心』, 北京師範大學 博士論文, 2019, p.87. 본 논문의 “小篆九類基本線條的筆次統計表”의 통계수치를 인용하였다.

이루어낸 전체적인 자형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만큼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표1>의 소전의 자형 중 ‘조(鳥)’는 갑골문이나 금문에 비해 직관적으로 새의 형상을 그리고 있지 않지만, 그 자형이 가리키는 바 역시 ‘새’라는 어휘의 의미이고, 여전히 자형을 통하여 새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낼 수 있을 만큼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소전의 상징성은 한자가 부호화 됨에 따라 문자의 상형성이 약해지면서 서사원소 역시 글자를 구성하는 순수한 필획으로서 그 성질이 변화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서사의 편리에 의해 ‘선’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변화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소전은 자형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의 형태를 간략화하고 가지런하게 다듬었다. 이에 소전의 ‘선’ 중 사용빈도가 높은 호선과 곡선의 경우 ‘선’을 쓸 때 신체가 부자연스럽다고 느끼는 역방향으로 써야 하는 형태들이 많아 서사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음에도 ‘선’의 형태를 더 개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호선과 곡선을 사용하여 소전의 자체(字體) 특징인 둥글고 길게 늘어지는 특징을 구현하여 소전의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소전의 상징성은 서사원소의 성질이 언어부호의 형체를 구성하는 ‘필획’으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전의 ‘선’을 ‘필획’으로 구분하지 않고 고문자의 ‘선’로 구분하는 이유이다. 동시에 이는 소전을 여전히 고문자 단계로 분류하는 이유 중의 하나인 것이다.

3. 고문자 서사원소의 귀납성























한자의 발전과정에서 서사원소 계통화의 최종 목표는 서사체계를 최대한 간략화하여, 지극히 제한적인 서사원소로 모든 한자의 형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에 서사원소가 형태상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지, 형태에 따라 귀납이 가능한지, 그리고 자형에 사용된 서사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지의 여부로 서사원소의 계통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1) 갑골문 서사원소의 유형화

갑골문과 금문의 ‘선’은 상형자가 기록하고자 하는 어휘의 실재하는 외부형체를 묘

사하는 ‘선’이다. 갑골문과 금문의 ‘선’은 묘사하는 사물의 형체가 무엇인지에 따라 그 형태가 다양하고 각각의 개별성이 강하다. 이에 갑골문과 금문의 ‘선’은 그 유형을 귀납하고 하나의 자형에 몇 개의 선이 조합되었는지 헤아리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이것이 갑골문의 서사체계가 무질서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갑골문은 아직 미성숙하지만 분명한 구형체계를 갖춘 문자였다. 따라서 구형체계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서사의 측면에서도 비록 엄밀하진 않으나 일정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학문면(郝文勉)은 갑골문 ‘선’의 유형 연구에 앞서, 갑골문의 ‘선’을 ‘시작과 끝이 일치하는 연속적이고 끊어짐이 없는 선분(首尾一致的連續不斷的線段)’으로 새롭게 정의하였다.¹⁴⁾ 그리고 예술유형학(藝術類型學) 이론에 의거하여, 갑골문의 자형을 구성하는 ‘선’에 대하여 그 형태와 서사방향을 기준으로 분류를 진행하였다. 그 분류 결과, 갑골문의 ‘선’을 6가지 유형으로 귀납하였는데, 바로 직선(直線), 호선(弧線), 곡선(曲線), 절선(折線), 봉쇄성 선(封閉性線條), 점(點)이다. 직선은 橫線(一 :  合集17055 正)·豎線(丨 :  合集137反)·撇線(ノ :  合集19827)·捺線(㇏ :  合集17055反)의 소유형으로 다시 세분화된다. 호선은 上弧(㇏ :  合集6498)·下弧(㇏ :  合集137)·左弧(㇏ :  合集943正)·右弧(㇏ :  合集8236)의 소유형으로 다시 세분화된다. 곡선은 左右曲線(㇏ :  合集15950)·上下曲線(㇏ :  合集165)·不規則曲線(㇏ :  合集2688)의 소유형으로 다시 세분화된다. 절선(折線)은 上折(㇏ :  合集6195)·下折(㇏ :  合集5444)·左折(㇏ :  合集15210)·右折(㇏ :  合集14943)의 소유형으로 다시 세분화된다. 봉쇄성 선(封閉性線條)은 方形(口 :  合集14689)·圓形(○ :  合集4261)의 소유형으로 다시 세분화된다. 점은 圓點(● :  合集19844)·橫點(一 :  合集13161)·豎點(丨 :  合集3262)·撇點(ノ :  合集7371)·捺點(㇏ :  合集13399正)의 소유형으로 다시 세분화된다. 이와 같이 갑골문의 ‘선’의 6가지 유형은 다시 각각의 소유형으로 분류된다. 이 소유형은 ‘선’의 형태에 따라 다시 소분류 된다. 예를 들어, 곡선의 左右曲線은 ‘선’의 명칭을 명명하지 않지만, ‘㇏’ 이외에도 ‘㇏’(㇏ 合集17993)·‘㇏’(㇏ 合集3523) 두 가지 형태를 더 포함하고 있다. 위에 적시한 각 소유형의 형태는 소분류 된 ‘선’의 유형들 중 하나를 소개한 것이다.¹⁵⁾



14) 한자의 ‘필획’은 일반적으로 중간에 끊어짐이 없이 한 번에 완성한 선이나 점을 말한다. 그러나 학문면은 ‘필획’의 개념으로 다양한 형태의 굴곡을 가진 갑골문의 ‘선’을 정의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그는 갑골문의 ‘선’을 ‘시작과 끝이 일치하는 연속적인 선분(首尾一致的連續不斷的線段)’으로 칭하고, 선의 형태에 어떤 굴곡의 변화가 있든지 선의 시작과 끝이 끊어짐 없이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의 ‘선’으로 보았다.

15) 郝文勉, 「甲骨文線條類論」, 『商丘師範學院學報』, 第11期, 商丘師範學院, 2008.11, pp.117-119. 이

학문면의 갑골문 ‘선’의 유형 분류 연구 결과는 상형성을 가지고 있는 갑골문의 ‘선’에 대하여 그 유형을 귀납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인식을 깨트리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는 또한 갑골문의 서사체계가 아직 미성숙하지만 일정 정도의 계통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근거 자료가 된다. 학문면의 갑골문 ‘선’의 유형 분류 연구를 통하여, 갑골문 ‘선’의 계통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학문면의 갑골문 ‘선’의 6가지 유형을 보면, ‘선’의 분류 기준이 포괄적이다. 이는 갑골문의 ‘선’이 규칙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 유형을 분류할 때, 각 ‘선’의 대유형의 전제조건에 부합하기만 하면, 구체적인 형태의 차이를 용납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문면은 곡선을 귀납할 때 두 곳 이상의 굴곡을 가진 형태를 곡선의 전제 기준으로 삼고, 굴곡이 어떤 형태든지 모두 곡선으로 귀납하였다. 곡선의 소유형 중 상하곡선(上下曲線)은 서사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향하고, 두 곳 이상의 굴곡을 가진 선이다. 이에 ‘ㄱ’·‘ㄴ’·‘ㄷ’을 모두 상하곡선으로 귀납한다.

또 다른 예로, 봉쇄성 선(封閉性線條)의 소유형 중 方形은 사각형의 선을 말한다. 이에 方形은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그리고 마름모형(◇) 등의 형태를 포함하고, ‘ㄹ’·‘ㄴ’도 선의 전체적인 윤곽이 사각형을 띄고 있는 것을 이유로 方形으로 귀납하고 있다.

둘째, 갑골문 ‘선’의 6가지 유형이 갑골문에 사용된 모든 ‘선’의 형태를 귀납하고 있지 않다. 갑골문의 서사 방식 중에는 독특한 방식이 있는데, 이는 바로 ‘면을 채우는 방식(填面)’이다. 예로, 갑골문 ‘丁’의 여러 가지 자형 중 ‘’(合集20646)과 ‘’(合集18338)은 자형의 공백을 채우는 방식으로 쓰여 있다. 이런 자형들은 갑골문의 강한 상형성을 나타내는 좋은 예시이지만, 서사원소를 분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어렵다. 이에 학문면의 ‘선’의 유형 분석에서도 ‘면을 채우는 방식(填面)’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위의 갑골문 ‘선’의 유형 연구 내용은 갑골문의 서사체계 내부에 이미 일정한 통일성이 형성되어 있지만, 그 통일성이 강하지 못하여 서사원소의 귀납성이 완정(完整)하지 못한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고문자 ‘선’의 본질이 글자를 구성하는 선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감에 따라, 소전 단계에 와서는 완정(完整)한 귀납성을 가진 서사원소가 형성되었다. 요컨대, 소전의 ‘선’이 유형화 된 것이다.

2) 소전 서사원소의 유형화

논문 pp.117-119의 갑골문 선의 유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인용하였다.

노민정은 『漢字書寫元素的演進——以『說文』小篆為中心』에서 郝文勉(2008)의 ‘시작과 끝이 일치하는 연속적이고 끊어짐이 없는 선분(首尾一致的連續不斷的線段)’의 개념을 인용하여 소전 ‘선’의 정의로 삼고, 소전의 기초구건을 분해하여 소전의 ‘선’을 분석하였다. 또한 철저한 묘사 분석을 위해 소전의 기초구건을 기준으로 소전 9451자를 재배열하고, 그 구건이 글자 구성에 참여하는 모든 자형의 선을 묘사함으로써, 소전 자형 9천 여자에 사용된 모든 선의 형태를 분석하고 귀납하였다.¹⁶⁾ 그 결과 157개의 소전 ‘선’의 필형을 분석하였고, 그 형태에 따라 9가지의 기본 대유형과 27가지의 소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소전 ‘선’의 9가지 기본 대유형은 다음 표와 같다.

<표2> 소전 ‘선’의 9가지 기본 대유형¹⁷⁾

명칭	대표형태	설명	예시
橫線	—	구부러지거나 혹은 접히거나 끊어짐이 없는 좌우 가로로 뻗은 직선	三 雨
豎線		구부러지거나 혹은 접히거나 끊어짐이 없는 상하 세로로 뻗은 직선	中 十
斜線	/	호도(弧度)가 없이 왼쪽 아래나 오른쪽 아래로 뻗은 사선	X ㄨ
點	·	원점, 둔점(頓點) 혹은 사방으로 뻗어나가지 않은 지극히 짧은 선을 포함하며, 동시에 筆意를 가지고 있다.	墨 生
弧線	∪	방향전환이 없는 곡선	皿 ㄣ
折線	┐	접점(折點)을 기준으로 두 가지 線段으로 이루어진 선	麻 岸
框線	∩	삼면이 포위된 형태로 그 선 안에 구건이나 한 가지 이상의 선을 포함하고 있는 선	冂 𠔁
封線	□	사면이 완전히 봉쇄된 선	國 𠔁
曲線	ㄣ	한번 이상의 방향 전환이 있는 곡선	𠔁 ㄣ

16) “按照‘首尾一致的連續不斷的線條’，對每個基礎構件進行拆分，離析出小篆的線條。再次，為了窮盡性地描寫分析，以小篆基礎構件為基準，對小篆9451個字樣進行重新排列，進一步描寫該構件參與構字的所有字形的線條，找出在小篆九千多個字樣中出現的所有線條的形態。” 盧珉廷，『漢字書寫元素的演進——以『說文』小篆為中心』，北京師範大學 博士論文，2019，p.19. 참조.

17) 노민정, 「書寫元素로 본 小篆字體의 特徵」, 『中國學』, 第70輯, 대한중국학회, 2020, pp.113-114.

소전의 9가지 기본선에 대한 27가지 소유형은 다음과 같다. 소전의 橫線은 선의 장단(長短)의 차이만 있을 뿐 한 가지 유형의 선이다. 豎線도 橫線과 마찬가지로 선의 長短의 차이만 있는 한 가지 유형의 선이다. 斜線은 左下斜(ノ)와 右下斜(ㄴ) 두 가지 소유형으로 나뉜다. 點의 소유형은 橫點(月), 豎點(冂), 圓點(井), 頓點(ㄱ) 그리고 斜點(ㄷ)이다. 弧線의 소유형은 內弧(ㄷ)와 外弧(ㄴ)이다. 折線의 소유형은 正折(ㄱ), 銳折(ㄴ), 曲折(ㄷ) 그리고 其他折線(ㄹ)이다. 框線의 소유형은 方框(口), 圓框(○), 曲框(ㄷ)이다. 封線의 소유형은 方封(口), 圓封(○), 三角封(△), 菱形封(◇), 五角封(⬠), 曲封(ㄷ) 그리고 U字封(ㄴ)이다. 曲線의 소유형은 ‘한번 방향이 전환된 곡선(ㄴ)’과 ‘여러 번 방향이 전환된 곡선(ㄷ)’이다. 또한 소전 ‘선’의 소유형은 한 가지 이상의 필형을 포함하고 있으며, 157개의 필형이 27개의 소유형에 각각 모두 귀납된다.¹⁸⁾

또한 소전 ‘선’의 서사표현을 살펴보면, 그 특징이 금문자의 ‘필획’과 같다. 바로 소전 자형을 이루는 ‘선’의 개수를 셀 수 있고, 서사순서¹⁹⁾에 따라 선을 배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사표현은 소전의 ‘선’이 이미 ‘사물을 묘사하는 선’에서 ‘글자를 구성하는 선’으로 그 성질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글자를 쓸 때 신체적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서사 습관을 근거로 하여 소전 ‘선’의 서사순서의 기본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전 軌(軌)는 형성자이고, 車(車)와 九(九) 두 개의 기초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형의 왼쪽에 놓인 구건부터 서사순서에 따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구건 車(車)는 ‘豎-橫-方封-橫’의 순서이고, 구건 九(九)는 ‘曲-曲’의 순서로 쓰였다.

이처럼 소전의 서사원소가 그 유형에 따라 9가지의 기본 대유형으로 귀납되어지고, 서사순서에 따라 소전의 자형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은 고문자의 서사원소체계가 소전의 시대에는 상당히 성숙한 계통화를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근거

18) 盧珉廷, 『漢字書寫元素的演進——以『說文』小篆為中心』, 北京師範大學 博士論文, 2019. pp.20-40. 소전의 27가지 소유형은 이 논문의 2장 “小篆書寫元素的類型”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19) 소전의 서사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先上後下, 예 三(三). 둘째, 先左後右, 예 林(林). 셋째, 先左到中右後, 예 川(川). 넷째, 先中間後兩邊, 예 巫(巫). 다섯째, 先外包後裡頭, 예 目(目). 소전의 서사순서는 대체로 금문자의 필순과 비슷하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은 자형에서 ‘선’의 起點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선을 起筆로 삼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전 牛(牛)의 起筆는 豎線이다. 이는 자형의 가운데 중심축인 豎線을 먼저 써야 나머지 弧線과 橫線의 좌우대칭을 맞추기 쉽고 전체적인 자형의 균형을 이루기가 쉽기 때문이다. 盧珉廷, 『漢字書寫元素的演進——以『說文』小篆為中心』, 北京師範大學 博士論文, 2019. pp.40-41. 참조.

이다.

4. 결론

고문자의 서사원소는 한자 자형이 부호화와 간략화를 거듭할수록 상형성에서 점점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소전에 이르러 서사원소의 본질적인 성질을 바꾸었다. 이는 고문자의 서사체계를 한층 더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키는 매우 중요한 변화로 고문자의 서사원소가 사물을 묘사하는 선에서 문자의 형체를 구성하는 선으로 변화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한자의 발전 과정에서 서사원소의 계통화가 성숙해짐에 따라, 개별성이 비교적 강했던 초기 고문자의 서사원소의 형태가 점점 유형화되면서 소전의 자형을 구성하는 모든 형태의 선이 9가지 기본 대유형으로 귀납되었다. 한자의 구형체계에 서 구성요소의 귀납성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문자체계가 계통화를 이루었다는 척도가 된다. 이로 볼 때 고문자의 서사체계는 소전의 단계에서 이미 상당히 성숙한 계통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문자 서사원소의 계통적인 발전은 예변(隸變)의 과정을 거치며 한자의 서사원소가 획기적으로 간략화되는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다. 이에 한자는 예서의 단계에서 상형성을 완전히 탈피하였으며, 한자의 기본 필획을 완성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고문자 서사원소의 계통화는 예변의 과정이 진행될 수 있었던 기반을 마련하는 발전 과정이며, 동시에 예변의 발전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 王 寧, 홍영희 역, 『한자구형학강좌』, 제이앤씨, 2011.
王鳳陽, 『漢字學』, 中華書局, 2018.
王立軍, 『宋代雕版楷書系統研究』, 上海教育出版社, 2003.
王 寧, 『漢字六論』,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2017.

<논문>

- 노민정, 「書寫元素로 본 小篆字體의 特徵」, 『中國學』, 第70輯, 대한중국학회, 2020.
郝文勉, 「甲骨文線條之建構分析」, 『平頂山學院學報』, 第3期, 平頂山學院, 2007.
——, 「甲骨文線條類論」, 『商丘師範學院學報』, 第11期, 商丘師範學院, 2008.
王立軍, 「從“篆隸之變”看漢字構形系統發展的方向性調整和泛時性特征」, 『語文研究』, 第3期, 山西省社會科學院, 2020.
盧珉廷, 『漢字書寫元素的演進——以『說文』小篆為中心』, 北京師範大學 博士論文, 2019.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漢字, 古文字, 書寫元素, 書寫體系, 漢字筆劃				
	영문	Chinese character, Old character, Transcription element, Transcription system, Number of strokes in Chinese characters				
<div><div>A Study on the Systematic Development Direction of Old Character Transcription Elements</div><div>Noh Min-Jung</div><div>Using Chinese characters as language codes to record Chinese words has created a mature character system by gradually repeating development. From the aspect of narrative, Chinese characters has completed a basic ‘number of strokes’of Clerical Script through a systematic development process of transcription elements in the stage of old characters. The systematic development of an old character transcription element consisted largely of two directions. One is the substantial change of the old character transcription element. It is a transitional process in which the transcription element, which contains hieroglyphics, becomes a line for composing characters by escaping from hieroglyphics. The other is a categorization process of the transcription element in old characters. Through the categorization of the transcription element, every ‘line’ that is used in a character shape was induced to a basic type of nine lines in Small Seal Script of Shuowen. Considering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se two old character transcription elements, this is an important basis to understand the foundation of Libian and its development direction.</div></div>						
저 자	노민정 / 盧珉廷 / Noh Min-Jung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2.02.20.	심 사 일	2022.02.24.	게재확정일	2022.03.11.